

시장 흔든 흥국생명, 결국 콜옵션 행사… 혼란 불식 기대감

콜옵션 유예 번복하고 행사하기로 관계자 “부정적 영향 줄어들 것” 금융위원장 “사실상 시장 혼란은 흥국생명 콜옵션 때문은 아니야”

흥국생명이 해외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조기상환권(콜옵션)을 행사하기로 했다. 조기상환 연기에 따른 금융시장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흔들리던 금융시장이 안정을 찾아갈 수 있을지 기대감이 모인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흥국생명은 이날 2017년 11월 발행한 5억달러(발행 당시 약 5571억원) 규모의 해외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한다. 흥국생명은 지난 7일 최근 조기상환 연기에 따른 금융 시장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콜옵션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흥국생명은 지난 9월 이사회를 열고 조기상환 자금 마련을 위한 신종자본증



흥국생명 본사 전경.

옵션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지난 달 31일 결정을 철회했다. 5억달러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이 발행됐던 당시의 원·달러 환율은 1100원대였지만 최근 들어 1400원대까지 올라섰다.

이후 지난 1일 조기상환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싱가포르거래소와 투자자에게 공시하면서 금융시장에 혼란이 야기됐다.

지난 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흥국생명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이행과 관련 정부의 ‘대응 미흡’을 두고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날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흥국생명이 콜옵션 행사를 안하기로 했고 금융 당국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며 “그런데 전날 흥국생명이 콜옵션을 다시 행사하기로 했다. 이 사안에 대해 이해력과 대처를 종합적으로 가졌는지 의문이 든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번 사안은 어떤 특정 기업, 금융회사와

관계돼 있기 때문에 자세히 답하긴 어려우나, 말씀의 포인트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라며 “흥국생명 건은 대주주가 증자하기로 했고, 콜옵션도 원래대로 발행하기로 했다. 수습이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김 위원장은 시장 안정을 두고 “신용스프레드는 여러 요인에 의해 불안감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이라며 “최근 이슈가 아니라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일어났던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사실상 시장 혼란이 흥국생명의 콜옵션 미행사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도 “흥국생명이 다시 콜옵션을 행사하기로 하면서 투자자들의 우려가 어느 정도는 진정될 수 있다”라면서 “금융시장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은 줄어들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권 발행을 결정하고 이를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까지 치솟으면서 발행 여건이 어려워지자 콜

금융위, ‘라임사태’ 손태승 회장 중징계… 연임 ‘귀추’

〈우리금융그룹〉

‘문책경고’ 상당 중징계 의결
우리금융 vs 금융당국 공방 예상
소송시 연임 가능성 열려있어
경영성과만 보면 연임 무게추

금융위원회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게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의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금융감독원 제재심 징계 원안대로 결정된 셈이다.

금융위 중징계 의결로 손 회장의 연임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지만 시장에서는 연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금융위 징계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서다.

9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5차 금융위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우리금융

안건소위원회를 통해 1조600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이 발생한 라임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회장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다. 1년 6개월 만이다.

라임사태는 지난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상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해 수익률을 부정 관리한다는 의혹으로 발생됐다.

이후 같은해 10월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에 포함됐던 주식 가격이 급락하면서 환매가 중단됐다.

손 회장은 직접적인 책임이 없지만 내부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징계 대상에 올랐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동일한 경영진 책임을 묻는 것이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

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날 금융위가 결정한 문책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다.

손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 종료된다. 업계에서는 손 회장이 금융위 중징계에도 연임에 성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서 DLF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문책 경고’ 중징계 처분을 받았던 손 회장이 금감원을 상대로 징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8월 1심과 지난달 2심에서 모두 승소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날 중징계 확정에도 소송을 제기할 경우 연임 전선에 문제가 없을 것이란 해석이다.

사법리스크에도 손 회장의 경영 성과를 부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 안팎에서 나온다.

우리금융은 지난해 속원사업이던 민영화를 23년 만에 성공했고,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순이익 2조6617억원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연간 순이익(2조 5879억원)을 뛰어넘었다. 증권사, 보험사 등 비은행 부문이 취약점을 고려했을 때 기대 이상의 성과다.

금융권 관계자는 “사모펀드 판매에 따른 금융권 CEO 중징계 당위성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며 “손 회장의 연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우리금융 내부 관계자는 “징계수위가 결정되고 나면 회사과점 주주들이 손 회장의 경영성과와 비전을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연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고인플레이션 지속에도 투심 ‘회복’

한은 ‘10월 이후 시장 동향’

지난달 위험자산 투자심리가 다소 회복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지속으로 주요국의 통화정책 긴축이 지속되는 가운데 영국 금융시장의 불안 완화,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 완화 기대 등에 힘입으면서다.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2022년 10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자금은 27억7000만달러 순유입됐다. 지난 9월 22억9000만달러 순유출을 기록한 한 달 만이다.

주식자금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의 긴축 지속 우려에도 불구하고 영국 금융불안 완화, 저가 매수세 유입 등의 영향으로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순유입 전환했다는 설명이다.

채권자금은 민간자금 유입 확대로 소폭 순유입으로 돌아섰다.

지난달 국내 은행 간 시장의 일평균 외환거래 규모는 292억2000만달러로 전월(294억2000만달러)에 비해 2억달러 줄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7일 기준 1401.2원으로 전월에 비해 줄었다. 주요국의 금리인상 속도에 대한 기대 변화에 영향을 받는 가운데 우리나라 무역수지 적자 지속에도 불구하고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50bp(1bp=0.01%포인트)), 외국인의 국내주식 매입자금 환전수요,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 완화 기대 등의 영향을 받으면서다.

환율 변동성도 전월에 비해 하락했다. 전월 대비 변동폭은 지난 9월 8.7원에서 7.7원까지 줄었다. 같은 기간 변동률도 0.62%에서 0.54%까지 축소됐다.

주식자금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의 긴축 지속 우려에도 불구하고 영국 금융불안 완화, 저가 매수세 유입 등의 영향으로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순유입 전환했다는 설명이다.

회사채시장 위축에 기업대출 ‘사상 최대’

한은 가계대출은 감소세

대기업 은행 대출 활용 증가

10월 중 은행 가계대출이 감소세를 이어갔다.

반면 회사채시장의 위축 영향으로 대기업의 은행 대출 활용이 늘며 기업대출은 10월 기준으로 관련 통계 속보치 작성(2009년 6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2022년 10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은 행 가계대출 잔액은 1058조8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6000억원 줄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 규모가 소폭 확대되고 기타 대출 감소폭이 다소 줄면서 전월 대비 감소폭은 축소됐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전월 대비 1조 3000억원 증가했다. 전세자금대출 취급이 다소 줄었으나 집단대출 등이 늘어

증가 규모가 소폭 확대됐다.

기타대출의 감소폭은 전월 2조1000억원에서 1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대출금리 상승, 대출규제(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 지속 등에 영향을 받아 감소세를 지속했다.

반면 기업대출은 기업의 운전자금 수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회사채시장의 위축 영향으로 대기업의 은행 대출 활용 증가 등으로 높은 수준의 증가세를 이어갔다. 이는 10월 기준 2009년 6월 이후 최대치다.

중기대출은 운전자금 수요 지속, 계절요인(부가가치세 납부) 등으로 4조 4000억원 늘었다.

대기업대출의 경우 회사채시장 위축에 따른 대출 활용 지속 등으로 9조3000억원까지 확대됐다.

신한銀, 4억 호주달러 규모 캥거루 채권공모 발행 성공

신한은행이 4억 호주달러, 2억 6000만 미화달러 규모의 캥거루 채권 공모 발행에 성공했다고 9일 밝혔다.

최근 단기금융시장 경색 등 한국계 채권에 대한 투자자 우려가 확대된 상황에서도 초과 수요 발행에 성공해, 호주 투자자 저변 확대를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는 시장의 평가다.

이번 캥거루 채권은 3년만기, 변동금리 구조로 3개월물 호주달러 스와프금리(BBSW)에 1.95%를 기산한 수준에서 발행됐다.

앞서 신한은행은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하반기에 10월 사무라이 채권에 이어 지난 2020년 9월 이후 2회 연속 캥거루 채권을 발행했다. 올해 3번째 ESG 채권발행으로 ESG 조달시장에서 선도적 위치를 공고히 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백지연 기자